

“모바일로 해결” 용역 O2O 급성장

교통·공간 중개로 성장해 노동력 연결 영역으로 확장... 카카오 가사도우미 서비스 진출 큰 이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O2O(Online to Offline) 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내 O2O 시장은 택시·대리운전 호출, 숙박·매장 예약 등 주로 교통과 공간 중개로 성장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제는 가사도우미, 이사 집 운반, 산후조리 등 노동력을 연결하는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도 용역 O2O 수요를 부추긴다.

가사도우미 연결 앱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이 용역 O2O 시장의 1세대로 꼽히는 가운데 지난 5월 카카오가 가사도우미 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해 큰 화제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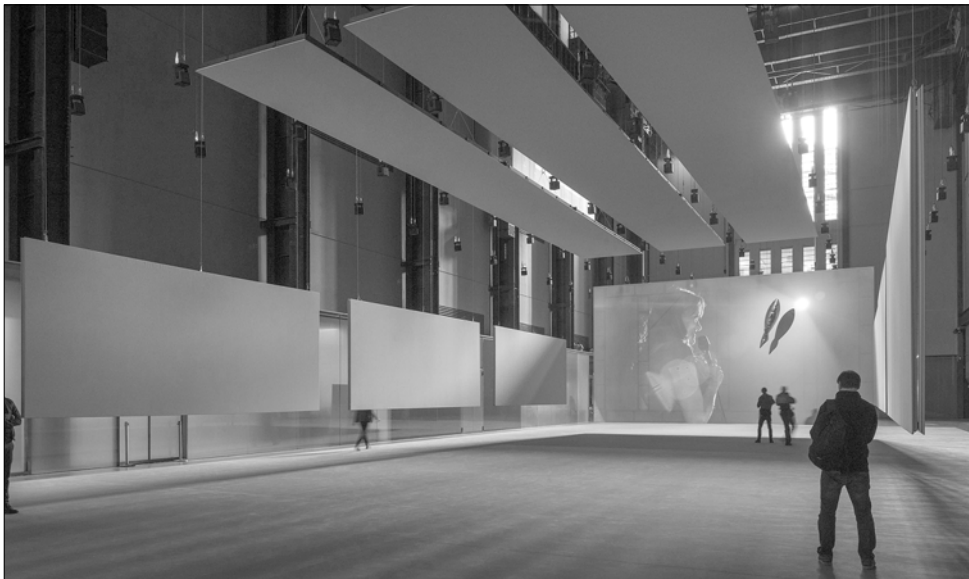
홈스토리생활은 2008년 인터넷사내벤처로 시작해 전문성을 위해 2014년 분사했다.

홈스토리생활의 서비스 영역은 집안 청소와 요리, 냉장고·에어컨 운반 및 청소, 포장이사 등 노동력이 필요한 모든 분야다. 카카오의 가사도우미 O2O ‘카카오 클린홈’은 내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으로 그만큼 용역 시장은 성장세가 큰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용역 업계는 동네 단위 소개업 또는 지인간 추천으로 시장이 형성돼 수요와 공급 연결이 불규칙하고 매뉴얼이 체계화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현재 시장에 나온 용역 O2O는 기존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불편함을 모바일로 해소하는 역할을 자처한다.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는 “온라인 시대에서 물건뿐 아니라 청소, 용역 등의 무형 서비스도 거래된다고 판단해 홈스토리생활을 만들었다. 직원들끼리 ‘대리주부는 가사 노동을 맡아주면서 이혼을 감소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빼어난 농담을 주고받는 다”며 “그동안 가사도우미들은 ‘아줌마’라 불리며 인력시장에서 저평가 되어 왔다. 우리 서비스는 가사도우미를 ‘매니저’란 직함으로 부르게 하고 각종 교육과 고객 평가를 통해 우수 매니저는 별도 포상한다. 매니저 호칭과 유니폼 등의 처우 시스템은 카카오에서도 채용해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가사도우미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고객만족의 최대치를 꼽았다. 예를 들어 모바일 콜택시는 콜을 빠르게 수락하고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승객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으로 임무를 완수한다. 그러나 요리, 청소, 산후조리 등의 만족도는 고객의 주관성이 크게 개입하는 영역이라 ‘100% 만족’이란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



현대 커미션 2016 현대미술관은 3일(현지시각) 영국의 세계적인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Tate Modern)에서 현대 커미션 2016 개막식을 개최했다.

한 대표는 “청소에는 100점이 없다 보니 매니저 분들이 힘들게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하더라도 쓴소리를 듣고 하대받을 때 제일 속상하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서비스 불만족 시 100% 환불’ 정책을 회사 부담으로 시행하고, 평점이 좋은 매니저는 급여를 더 받으며 일하게 한다”며 “사업을 하며 가장 뿌듯할 때는 많은 구직자가 우리 서비스로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이다. 대리주부로 월 300만원을 넘게 버신 매니저가 다수 있고, 지난 추석 명절 때 어떤 고객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줘서 고맙다’며 매니저에게 임금이 4배(4인 가구 또는 40명 이하가정 기준 4시간당 4만원)가 넘는 한우세트를 선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가사도우미 서비스 진출은 내년 용역 O2O 업계의 가장 큰 이슈다. 카카오가 시장을 키운다는 고무적 평가도 있지만 대기업 출사표에 벤처 투자 분위기가 얼어붙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청소 O2O ‘홀클’이 수익화와 자금문제로 지난 5월 문을 닫아 안타까움을 낳았다.

한 대표는 “카카오가 가사도우미 서비스 진출을 실제 출시 시점보다 이르게 발표해서 그사이 동종업계의 투자가 경색된 것은 사실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카카오란 거대 기업이 진출하는데 벤처기업이 당해내겠어란 의문이 퍼졌다.

카카오가 신규 사업을 조기에 발표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며 “물론 경쟁사로서 의식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사도우미 시장은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한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홈스토리생활의 경우 인터넷과 자회사 시절부터 오프라인 영역에서 쌓아온 내공도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카카오의 진출이 꼭 부정적이진 않다고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카카오가 이 시장에 들어오면 1970년대에 만들어진 가사도우미 법을 모바일 시대에 맞게 바꾸는데 속도를 내게 할 수 있다. 이용자들에게 ‘모바일로 택시만 부르는게 아니라 필요한 노동력도 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결국 서비스의 질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자 차별성이다. 홈스토리생활은 양질의 서비스와 데이터를 갖추며 우수한 매니저 분들이 교수익을 올리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일명 ‘가사도우미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가사도우미를 비근로자가 아닌 4대 보험 혜택을 받는 정식 근로자로 인정하고, 고객이 가사도우미에게 일당을 현금으로만 주게하는 방식을 고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카카오는 카카오킨홈의 가사도우미 임금을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결

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업 소개 사업을 위한 별도 법인 설립과 이사회 개편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시스

카드 여러장 분실해도 전화 한통이면 일괄 신고 가능

이달부터 한 통의 전화로 분실한 모든 신용카드를 일괄해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는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에 전화해 분실 신고하면 타사 카드도 선택해 분실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인은 점수 카드사에 성명,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신고할 수 있다. 정상 접수되면 카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린다.

신고 대상 카드는 본인명의(주민등록번호 기준)의 신용·체크·가짜카드 불법카드 등은 제외됐다. 다만 분실신고를 일괄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실신고 해제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각 금융회사로 연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전화 접수뿐 아니라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일괄 신고도 연말에는 가능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뉴시스

쉐보레, 최대 257만원 파격 할인

아베오·크루즈·트랙스·올란도 등에 10월 한달 간

쉐보레(Chevrolet)가 2016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참여, 쉐보레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쉐보레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벤트의 일환으로, 10월 한달 간 아베오, 크루즈, 올란도, 트랙스 등 4개 차종을 구입하는 선착순 2,000명의 고객에게 취득세 7%와 자동차세 1년치를 할인해 주는 ‘쉐보레 텍스프리’ 특별 조건을 마련했다. 이 조건을 활용해 올란도 구입

시 최대 257만원을 할인해 주며, 크루즈 디젤 최대 215만원, 트랙스 최대 206만원, 크루즈 가솔린 최대 195만원, 2016 아베오 최대 159만원 할인 등 큰 폭의 할인혜택을 준비했다.

쉐보레는 이 외에도, 10월 한달 간 전차종에 콤포트 할부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결혼, 이사, 출산 등 새출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을 추가로 할인해 주는 등 풍성한 구입 혜택을 마련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주담대 ‘절반’ 만 주택구입에

올 1~6월 신규 취급액 48.5%가 생계자금 등에 쓰여

“주택담보대출 중 절반 가량은 생계비나 사업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8개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SC·씨티·농협·기업 등)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중 48.5%가 생계자금, 사업자금, 대출금상환, 주택임대차 등에 쓰였다.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중 실제 주택구입에 쓰인 비중은 51.5%였고 기타(19.0%), 주택임대차(12.3%), 대출금상환(9.4%), 생계자금(7.0%), 사업자금(0.8%) 순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은이 발표한 ‘2016년 2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1~6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8조4000억원 수준이다. 단순히 이 수치를 놓고 보면 8조9240억원이 주택구입 외 다른 곳에 쓰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12~2015년 연간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자금용도를 살펴보면 실제 주택구입에 쓴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12년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구입 비중은 46.6%였으나, 지난해엔 44.7%로 줄었다. 같은 기간 생계자금은 7.1%에서 11.1%로 늘었고, 대출금상환은 22.0%에서 25.3%로, 주택임대차는 4.5%에서 5.9%로 증가했다. 사업자금 비중은 2.5%에서 1.1%로, 기타 비중은 17.3%에서 11.9%로 감소했다.

아울러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중은 지난 6월말 기준 20.1%에 달했다. 같은 기간 다중채무자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잔액에서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0.5%에 이른다.

한은은 “중앙은행으로서 가계부채의 누증 요인, 관련 잠재리스크의 주 내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주열 한은총재 재임기간, 가계부채 230조 늘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재임기간 동안 가계부채가 230조원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 취임 전인 2014년 1분기 102조4000억원이었던 가계빚이 2년 동안 230조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간 가계

부채는 6%대 증가세를 보였고, 이주열 총재 재임기간 21% 이상 급증했다. 올 2분기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사상 최대치인 1257조3000억원이다.

특히 김 의원은 내수경기를 견인한다는 방침 아래 기준금리를 5차례 인하하며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전·월세 전환 및 전세값 급등으로 인해 주거비 폭탄과 가계부채 급증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